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3 pp. 198-209,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3.198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긍정심리자본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

이효영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Participation in Lifelong: Mediating effects of Self-directedness to learning

Hyo-Young Lee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평생학습기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긍정심리자본을 독립변인으로, 평생학습 참여성과를 종속변인으로, 자기주도성을 매개변인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은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은 자기주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주도성은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주도성은 긍정심리자본과 평생학습 참여성과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긍정적 심리와 자기주도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체제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긍정심리자본, 자기주도성이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긍정심리자본의 평생학습조직에의 적용 등 평생학습 참여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결과는 성인학습자의 학습을 비롯해 평생교육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ness of adult learners in Korea. The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us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an independent variable,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performance as a dependent variable, and self-directedness as a mediating variabl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adult learner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elf-directedness and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Second, self-directednes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Third, self-directedness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positive learning psychology and self-directedness are important factors for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ifelong learning systems and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rograms that can enha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elf-directedness of adult learners.

Keyword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ness to learning,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Performance, Adult learners,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Hyo-Young Lee(Chungnam National Univ.)
Tel: +82-10-9405-9071 email: prepare31@naver.com
Received November 23, 2017 Revised December 19, 2017
Accepted March 9, 2018 Published March 31, 2018

1. 서론

최근 긍정심리학, 행복한 삶과 긍정적 정서, 긍정의 마인드에 대해 다양한 분야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오고 있다. 긍정심리가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하나의 새로운 자본으로 그 영향력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긍정심리학에서 파생된 긍정심리자본은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과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된 이후, 조직차원에서 강조되던 개념은 점차 학문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1][2]. 긍정심리자본에서는 학습자가 긍정적 심리를 통해 주어진 목표를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며, 긍정적인 심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학습에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평생학습 참여에 있어 성인학습자는 학습자의 자의적 판단과 스스로의 의지로 학습에 참여한다.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의 심리와 정서는 중요한 요인으로 오랫동안 다루어져 온 주제로 학습자의 심리상태는 자기주도성을 이끄는 동원(動源)으로 강조된다[3][4]. 즉 긍정적 정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촉진을 도우며[5]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조직성과, 직무태도 등과 같은 학습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6][7][8]. 이러한 성인학습자의 긍정적 마음가짐에 대한 적합한 방법의 제공은 성인학습자의 학습을 지속하게 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과 사회로의 적응의 요인이 되며, 긍정적 마음가짐은 평생학습참여를 통한 성과를 가져다준다.

평생학습 참여성과는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고용안정성, 인적자원 역량 향상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를 비롯하여 참여성과 분석연구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평생학습 참여성과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 참여성과 요인과[9][10] 참여성과 분석연구로 구분해볼 수 있다[11][12]. 참여성과에의 영향 요인으로 학습자 특성이 평생학습에서 있어 중요한 변수라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9][10]. 한 가지 주목해볼 점은 개인적 특성 즉 자아개념, 자기주도성, 책임성, 내적 동기와 같은 평생학습을 위한 자질은 긍정적 정서를 통해 향상 될 수 있다는 것이다[13]. 이러한 점에서 평생학습 참여성과에의 긍정심리자본의 시사점은 Fredrikson (2001)의 확장과 축전 이론(sbroaden and build theory)에서 찾아볼 수 있다[14]. 긍정심리자본이 개인의 긍정적 감정이 사고-행동을 확장시키고, 지적, 심리적, 사회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축적시키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 정서가 지속적 개인자원의 축적되어 개인의 변화 및 상향적 발전의 선순환의 효과로 설명된다. 이는 긍정 정서가 학습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이나 어려운 일에서도 빠른 적응적 반응과 긍정적 기분상태로 회복을 돕는 학습을 위한 자질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긍정심리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지속하기 위한 자질들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13]. 이에 따라 긍정심리자본과 교육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그 관계의 긴밀성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계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성인학습자를 직접 대상하여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비정규교육과정에서 학습에의 지속적 참여와 실제 상황에서 삶의 한 과정으로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중요성과 관련 연구 영역의 확장 그리고 관련 요인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내재적 특성으로 대표되는 자기주도성의 선행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와 어떠한 영향 관계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긍정심리를 형성한 성인학습자는 학습에서 자기주도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주도성은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평생학습 참여성과를 살펴볼 때, 성인학습자의 내적 특성은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내적 특성의 근본 원천은 긍정심리를 형성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은 삶의 한 과정과도 같으며, 삶에서 내재적 심리요소가 작용하는 것과 같이 학습의 참여와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는 학습자의 내재된 심리적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는 추후 학습의 지속과 참여율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인학습자의 참여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이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매개로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평생교육 발전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학습체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수행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은 자기주도성과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긍정심리자본과 평생학습 참여성과 간에 매개효과를 갖는가?

2. 본론

2.1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심리학적 기질이기보다는 상태적인 심리역량으로[15], 상태적이라는 것은 안정적이거나 착안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4개의 하위요소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회복탄력성(resilience), 낙관성(optimism)으로 분류된다[15]. Luthans, Norman, Avolio & Avey(2008)는 위와 같은 네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긍정심리학 및 동기유발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폭넓게 조사한 후, 조직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상태적 긍정적 심리자원 역량(state-like psychological resource capacities)'을 기반으로 각각의 요소를 통합하는 상위개념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제시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주어진 환경에서 특정 업무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인지자원, 행동의 방향 등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능감 정도를 의미한다. 희망(hope)은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려운 일을 겪어도 이를 극복하고 발전적으로 다가서는 것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잘못된 일에 집착하지 않으며, 앞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낙관성(optimism)은 실패의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16].

관련 선행연구로 [17]은 중등 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를 통해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주도성능력이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긍정심리자본은 자기주도성능력보다 직무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성과 긍정심리자본, 전공몰입, 행복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를 통해 긍정심리자본이 자기주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며 성인학습자의 학습과정에서 긍정심리자본과 행복교육에 관한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1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자본이 학습성과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심리적 자본은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학습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외에 긍정심리자본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20]등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직업탐색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평생학습학과 긍정심리학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Robinson[21]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리자본인 탄력성과 자기주도성 수준 간의 유의한 정적 관계를 밝혔다. 이러한 학습자의 심리적 자본은 자기주도성과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심리적 자본을 높이 지각하는 학습자의 경우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며 학습과제를 더욱 가치 있게 인식과 학습에 지속성을 갖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종합하면, 긍정심리자본이 많이 형성된 학습자일수록 학습에서 스스로의 자기주도성을 획득하며, 이러한 특성은 학습에서 참여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이 긍정심리자본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학습자의 참여성과를 나타내는 핵심자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장환영[13]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 평생학습이 갖는 의미를 긍정심리학에서 찾았다. 즉 진정성, 행복, 심리자본은 교육이 추구하는 본질과 목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긍정심리학은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2.2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성인교육학에서 오래된 연구 주제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Knowles[23]는 자기주도성을 학습자가 학습을 스스로 계획하며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에 있어 학습자가 주도적인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는 학습과정 또는 학습을 책임

지고 싶어 하는 학습자의 욕구, 의지, 기호정도를 뜻하는 인성적 특성으로 안드라고지 학습 원리로 제시하였다.

즉 자기주도성은 성인이 타인의 조력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실행하며,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평가하는데 주도권을 갖는 학습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성에 대한 학습방법과 학습과정 또는 성인학습자의 정서적 및 인지적 특성 등 다양한 논의와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4][25].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학습을 주도해 나가는 주체로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문제해결능력과 적응능력 그리고 여가선용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며[26], 지속적인 학습과정의 주체로 참여함에 따라 평생학습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7]. 이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28]. 김요완[29]은 자기효능감과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으며, 자기주도성은 학습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최경애[28]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학습전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닝 학습환경의 성인학습자를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습전략과의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상훈[26]은 대학부설 평생학습원에 수강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준비도의 평생학습 성과(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직업적, 가정적, 사회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자기주도성이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성과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졌다. 유지원 외[4]는 대학생의 학습참여에 있어 자기주도성과 심리적 자본 연구를 통해 자기주도성과 심리적자본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혔으며, 자기주도성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인 심리적 자본은 학습자의 학습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기주도성은 긍정심리자본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자기주도성은 학습에서 참여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2.3 평생학습 참여성과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성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평생학습은 고용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인적 자본의 성장과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평생학습 참여는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기여하며 범죄율을 낮추며, 정치적인 측면에서 평생학습은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정치적 참여를 높여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할 수 있다. Boone et al[30]은 참여성과를 학습참여자가 교육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나 혜택으로 정의하였고, Beder[31]는 성인교육 참여의 결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와 더 크게는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보통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는 학습의 참여로 인하여 학습자 개인에게 나타난 성장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국민의 전반적인 학습과 의식 수준 등이 향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학습의 참여성과에 대한 측정은 성인학습 성과분석모형에 가장 흡사한 면을 보인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여성과를 개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으로 범주화하였다. 보통 개인적 자본의 참여성과는 지식·기능·기술 등의 인지적 성과와 가치관·태도·동기·자아개념 등의 정의적 성과, 체력의 증진 등의 신체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성취 등의 사회적 성과로 구분된다[32]. 개인적 자본은 개인이 학습을 통해 생성되는 정의적, 신체적, 사회적 성과를 의미하며, 사회적 차원의 성과는 교육을 통해 나타난 사회 변화, 사회적 평등의 실현, 인력의 공급, 경제발전, 정치 및 사회발전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성과는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네트워크와 규범을 지칭하며[33], 인적자본과 달리 개인적 태도뿐만 아니라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존재하는 관계성을 의미한다. [34]는 학습성과 측정도구로 개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하였으며, Putnam[35]은 개인적 자본은 개인의 정신 건강, 삶의 질과 학습에 대한 열정 등을 나타내며,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존재하는 관계성 즉, 상호이익을 가져다주는 네트워크와 규범을 지칭한다.

Schuller et al[33]는 영국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평생학습 참여성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비경제적 이익과 개인적 수준의 평생학습의 성과를 밝히고자 시도하였으며, 최운실[12]은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분석 모형 연구에서 Schuller et al[33]의 성인학습 성과 분석 모형을 근거로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성과를 HRD자본, 개인적 자본, 사회문화적 자본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운실[12]과 Schuller et al[33]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참여성과는 성인학습자의 개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평생학습 참여성과는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요인들과 참여성과 연구들에서 요인들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포괄적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주도성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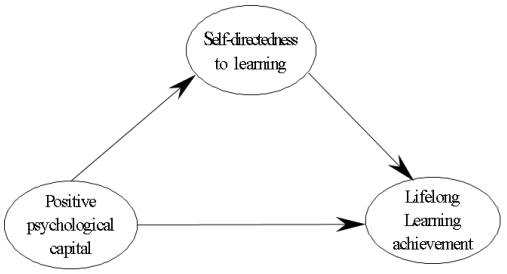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D시 평생학습기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2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분석에 활용된 표집의 수는 215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215)

Division		Fre. (n)	Ratio (%)
gender	male	70	32.6
	female	144	67.0
Marital status	Single	74	34.4
	Married	141	65.6
Age	20's	46	21.4
	30's	37	17.0
	40's	48	22.3
	50's	31	20.9
	60's Over	53	24.7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86	40.0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	21	9.8
	College graduate	86	40.0
	Above graduate school	22	10.2
Job	Professional /Research	33	15.3
	Office / management	65	30.2
	Sales / Service	26	12.1
	Self-employed business	33	15.3
	Unemployed and others	58	27.0
Period of study participation	1-6 months	74	34.4
	6-12 months	50	23.3
	1 year - 3 years	44	20.5
	3 years or more	47	21.9

3.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주도성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을 독립변인으로, 자기주도성을 매개변인으로, 평생학습 참여성과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측정방법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 자기주도성, 평생학습 참여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긍정심리자본 측정도구는 Luthans et al[16]의 척도를 번역한 박권홍[6]의 척도로 Cronbach의 α계수는 .632~.814이다. 자기주도성 측정도구는 West & Bentley[36]의 척도를 유귀옥[37]이 번안한 척도로 Cronbach의 α계수는 .750~.843이다. 평생학습 참여성과 측정도구는 최운실[12]과 Schuller et al[3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연구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Cronbach의 α계수는 .812~.838이다.

Table 2. Construction and reliability analysis of measurement tools

Pot. variables	Measured vari.	Item no.	Reliabi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5	.814
	Hope	5	.810
	Optimism	5	.632
	Resilience	5	.730
Self-directedness to learning	Learning confidence	4	.803
	Learning attachment	6	.788
	Learning acceptance	3	.758
	Learning curiosity	5	.750
	Self-understanding	5	.843
	Challenge openness	4	.875
Lifelong learning achievement	Personal achievement	7	.838
	Social performance	3	.812

3.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다회귀분석과 AMO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측정변인 간 기술통계 분석

각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Measured variables Average, SD, Skewness, Kurtosis

(n=215)

Pot. variables	Measured variables	Item no.	M	SD	Skwness	Kurtosi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6	3.476	.861	-.535	.264
	Hope	6	3.411	.804	-.310	-.186
	Optimism	6	3.726	.821	-.610	.493
	Resilience	6	3.713	.947	-.752	.668
Self -directedness to learning	Learning confidence	6	3.952	.910	-1.133	1.394
	Learning attachment	4	3.525	.745	-.348	.062
	Learning acceptance	6	3.478	.802	-.364	.275
	Learning curiosity	5	3.398	.961	-.556	-.114
	Self-understanding	6	3.849	.874	-.723	.756
	Challenge openness	5	3.577	.809	-.478	.469
Lifelong learning achievement	Personal achievement	9	3.512	.874	-.407	.464
	Social performance	3	3.564	.807	-.592	1.107

변인들의 평균값은 중앙치를 유지하고 있고, 왜도는 표준지수로서 절대 값이 2, 첨도는 표준지수로서 7을 넘지 않으므로 자료의 정상분포를 잘 가정하고 있다.

4.2 측정변인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제시된 각 요인들의 신뢰성을 위한 측정도구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검사를 위해서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4.와 같이 Cronbach α계수 모두 .60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of the Measured Variables

(n=215)

Pot. variables	Measured vari.	Item no.	Reliability	Total cofi. degre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6	.814	.935
	Hope	6	.810	
	Optimism	6	.632	
	Resilience	6	.730	
Self-directedness to learning	Learning confidence	6	.803	.960
	Learning attachment	4	.788	
	Learning acceptance	6	.758	
	Learning curiosity	5	.750	
	Self-understanding	6	.843	
	Challenge openness	5	.875	
Lifelong learning achievement	Personal achievement	9	.838	.915
	Social performance	3	.812	

4.3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주도성이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

4.3.1 긍정심리자본이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이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Participation Performance

(n=215)

Variables	Non-stand coefficients		Standar dized coeff (β)	t	Multicollinearity	
	B	S.E			Tolerance	VIF
Constant	.459	.182		2.524		
Self-efficacy	.135	.062	.145	2.161*	.426	2.350
Hope	.320	.066	.322	4.815***	.430	2.324
Optimism	.360	.066	.370	5.455***	.418	2.391
Resilience	.048	.044	.057	1.090	.714	1.401
F=79.631***, R=.783, R^2=.613						

*p<.05, ***p<.001

긍정심리자본의 다중공선성은 10이하이며 공차는 .237~.318을 보이고 있다. 성인학습자의 자기효능감(t=2.161), 희망(t=4.815), 낙천성(t=5.455)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복탄력성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090).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는 낙천성(β=.370), 희망(β=.322), 자기효능감(β=.145)의 순으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소인 낙천성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참여성과 총 변화량의 61.3%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2 긍정심리자본이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이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과 같이 사용된 요들의 공차값은 1에 근접하고 있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인학습자의 자기효능감(t=3.133), 희망(t=6.601), 낙천성(t=4.232), 회복탄력성(t=3.064)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소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는 희망(β=.393), 낙천성(β=.256), 자기효능감(β=.188), 회복탄력성(β=.142)의 순으로 희망이 자기주도성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참여성과 총 변화량의 68.7%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Self-directedness to learning

(n=215)

Variables	Non-stand coefficients		Standar dized coeff (β)	t	Multicollinearity	
	B	S.E			Tolerance	VIF
Constant	.992	.129		7.699		
Self-efficacy	.138	.044	.188	3.133***	.318	3.146
Hope	.311	.047	.393	6.601***	.248	4.030
Optimism	.198	.047	.256	4.232***	.288	3.477
Resilience	.095	.031	.142	3.064***	.241	4.148
F=113.717***, R=.833, R^2=.687						

***p<.001

4.3.3 자기주도성이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사용된 요들의 공차값은 1에 근접하고 있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을 판단할 수 있는 Durbin Watson의 통계 값이 1.972로 2에 근접하므로 상호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Table 7. The Effect of Self-directedness to learning on Participation Performance

(n=215)

Variables	Non-stand coefficients		Standar dized coeff (β)	t	Multicollinearity	
	B	S.E			Tolerance	VIF
Constant	.247	.222		1.114		
Learning confidence	.172	.066	.196	2.614**	.405	2.469
Learning attachment	.278	.072	.259	3.852***	.500	2.002
Learning acceptance	.141	.061	.141	2.313*	.608	1.644
Learning curiosity	.119	.056	.143	2.126*	.501	1.996
Self-understanding	.077	.066	.084	1.163	.437	2.288
Challenge openness	.124	.065	.126	1.894	.515	1.940
F=40.369***, R=.741, R^2=.549						

*p<.05, **p<.01, ***p<.001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하위요소인 성인학습자의 학습자로서 자기 확신(t=2.614), 학습 애착(t=3.852),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t=2.313), 학습 호기심(t=2.126)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이해와 도전에 대한 개방성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하위요소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는 학습 애착(β=.259), 학습자로서 자기 확신(β=.196), 학습 호기심(β=.143),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β=.141)의 순으로 나타나 학습 애착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생학습 참여성과 총 변화량의 54.9%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4 긍정심리자본, 자기주도성, 평생학습 참여성과 간의 경로

4.4.1 변수 간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 자기주도성, 평생학습 참여성과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관련성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심리자본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평생학습 참여성과의 구성 요인은 유의수준 p<.01에서 Table 8.과 같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Correlations of variables

(n=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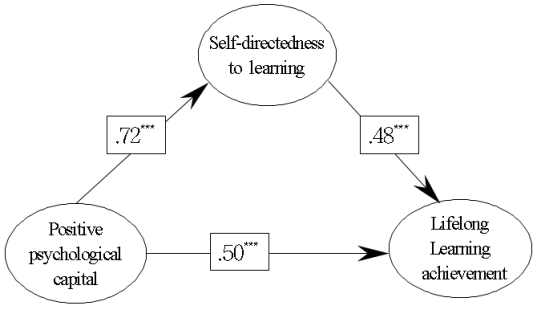
변인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M	SD
x1	1												3.92	.910
x2	.465**	1											3.55	.745
x3	.463**	.525**	1										3.48	.802
x4	.602**	.515**	.485**	1									3.38	.961
x5	.693**	.550**	.327**	.489**	1								3.89	.874
x6	.495**	.586**	.492**	.589**	.490**	1							3.57	.809
x7	.553**	.602**	.501**	.462**	.545**	.494**	1						3.46	.861
x8	.519**	.624**	.578**	.656**	.501**	.580**	.691**	1					3.41	.804
x9	.665**	.536**	.450**	.597**	.620**	.507**	.696**	.684**	1				3.76	.821
x10	.401**	.439**	.415**	.388**	.451**	.528**	.449**	.477**	.494**	1			3.73	.947
x11	.504**	.627**	.535**	.542**	.504**	.519**	.650**	.719**	.667**	.408**	1		3.52	.874
x12	.618**	.544**	.464**	.558**	.523**	.566**	.585**	.613**	.703**	.467**	.808**	1	3.54	.807

**p<.01

- Independent variables(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x1 (self-efficacy), x2(hope), x3(optimism), x4(resilience), Mediating variables(Self-directedness to learning), X5 (Learning confidence), x6(Learning attachment), x7(Learning acceptance), x8(Learning curiosity), x9(Self-understanding), x10(Challenge openness), Dependent variables(participation performance): x11(personal capital), x12(social capital)

4.4.2 긍정심리자본, 자기주도성, 참여성과 변수 간의 경로분석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의 비표준화 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산출해 본 결과 Fig 2.와 같다. 또한 Table 9.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Path coefficient: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β)

Fig. 2. The Path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ness to learning and Lifelong learning achievement

Table 9. Significance test result of path coefficient

division	Estimate	S.E	C.R.	*P*
Self-directedness to learn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719	.033	21.512	.000
Lifelong Learning achievement ←Self-directedness to learning	.482	.093	5.191	.000
Lifelong Learning achievem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496	.080	6.192	.000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효과를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효과를 추정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0. Effect of Variables

Total effec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ness to learning
Self-directedness to learning	.719	.000
Lifelong Learning achievement	.842	.482
Direct effec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ness to learning
Self-directedness to learning	.719	.000
Lifelong Learning achievement	.496	.482
Indirect effec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ness to learning
Self-directedness to learning	.000	.000
Lifelong Learning achievement	.346	.000

총 효과를 보면, 긍정심리자본은 자기주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경로계수=.719), 평생학습 참여성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자기주도성은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 =.482). 긍정심리자본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경로계수는 .346으로 나타나 긍정심리자본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로계수 .496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으로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평생학습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과 긍정심리와 자기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과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D시의 평생교육기관 성인학습자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총 215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을 위해 측정변인 간 기술통계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중다회귀분석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주도성, 평생학습 참여성과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은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탄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7][18][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이 형성될수록 자기주도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은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4][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긍정심리자본이 높아질수록 평생학습 참여성과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이 평생학습 참여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참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주도성이 참여성과에의 긍정적 영향력은 이들 간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17][26][29]의 결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점은 성인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높아질수록 평생학습 참여성과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이해와 도전에 대한 개방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긍정심리자본과 평생학습 참여성과 사이를 매개하여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자기주도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이 참여성과에 영향을 주지만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참여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주도성을 통해 긍정심리자본과 참여성과의 두 변수의 인과관계,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해짐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주도성, 참여성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주도성이 선행되어야 함이 증명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사항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 참여성과를 높이는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주도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학습프로그램이 개발 및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우선 성인학습자가 선택한 프로그램 이외에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주도성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이다. 즉 성인학습자는 긍정심리와 자기주도성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마인드와 자기주도성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인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학습에 대한 긍정심리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일터, 삶터에서 긍정심리학, 긍정심리, 긍정의 힘에 대한 단기 프로그램과 세미나 제공을 통해 지속적 긍정심리를 갖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와 평생교육 강사, 평생교육사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성인학습자의 경우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학습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은 참여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성인학습자의 내재적 요인으로써 자기주도성과 긍정심리자본이 평생교육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점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연구결과의 실제적 적용은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전반적인 평생교육 참여성과는 우리나라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발전의 긍정적 영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성인학습자는 지역 평생교육기관을 기반으로 지역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학습한다. 따라서 학습동아리, 학습마을과 같은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긍정심리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지원, 학습공동체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돕는 구성원 간의 상보적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자의 학습의 실제적 공간인 평생교육기관은 학습지원 체계 구축에 있어 성인학습자의 개성, 태도,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을

고려하여 긍정심리자본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긍정적 심리를 형성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의 마련과 학습에서 평생교육 강사, 동료학습자와 긍정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학습 공간 및 학습활동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학습자의 학습은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상황과 학습과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주도성 함양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인학습자, 평생학습 교수자, 평생교육기관 경영자의 긍정심리자본 제공과 확대를 제안해본다.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적 수준(individual level), 조직 및 사회 수준(group level)으로 나누어 질 수 있고 각 수준별로 긍정적 감정(positive emotions), 긍정적 성격 특질(positive character traits), 긍정적 기관 및 조직(postitive institutions)이라는 하위영역 도출이 가능하다[38]. 개인적 수준에서는 평생교육사, 학습동료, 평생교육강사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성인학습자는 지역사회 평생학습기관을 중심으로 자신의 학습요구에 따라 선택한 학습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형태를 갖는다. 또한 지역 평생학습기관을 기반으로 지역학습공동체를 형성하며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학습동아리, 학습마을 만들기와 같은 학습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습관계를 형성해나갈 때 긍정심리자본을 축적시켜 나갈 것이다. 조직 및 사회 수준에서는 개인적 수준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돕는 지원적 역할과 자체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긍정조직학(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POS)은 긍정적이고 활력적 조직에 대한 연구로[39]평생학습조직에 긍정적 결과와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지원적 역할로 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 형성을 위한 학습상담의 제공, 수강 프로그램이외에 긍정심리자본, 자기주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그룹 학습조직에 긍정심리를 강화할 수 있는 관련 강사를 배치한다든지, 평생학습 강사를 대상으로 학습활동에서 개인, 그룹별 활동에서 접목 가능하도록 학습방법에 대한 연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체적 역할로는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학습에서 감정적 측면과 조직의 발전에 장기적 관점을 갖는 것으로 평생교육조직의 장기적 성장은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신념과 도덕적 가치를 강화한다[13].

넷째,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는 자기주도성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을 통한 영향 경로를 추가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평생학습 참여와 지속, 학습태도 등에 대한 연구들에서 자기주도성을 통한 간접적 영향경로를 설정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의 학습특성을 나타내는 학습패턴, 학습배경, 학습방법, 학습과정, 학습 프로그램 내용 등 학습관련 변인과 학습접근의 방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평생학습 참여성과를 나타내는 학습자특성은 지역사회요인, 사회참여, 학습공동체 활동, 평생학습기관특성, 교수자 및 학습동료와의 상호작용, 학습자 역량, 학습 태도와 가치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종합한 연구의 가능성을 제안해 본다.

그러나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의 지속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요인들에 의해서도 작용한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 자기주도성, 평생학습 참여성과 사이에서 상호보완적 작용에 대한 환경적 요인과 이에 대한 통제와 투입 그리고 학습 참여 기간 지속과 증가에 대한 탐구와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제안은 평생학습기관의 학습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주도성의 향상과 성인학습자의 참여성과에 영향과 추후 평생학습의 참여를 지속하고 높이는 방안 마련에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주도성 함양에 대한 방안과 평생학습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성과 향상의 질적 수준 제고 가능성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설문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D시라는 특수한 지리적 상황과 215여명을 대상의 횡단적 자료 분석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성인학습자 개인의 연속적 현상 파악과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소도시 또는 도시/농촌 간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긍정심리자본과 자기주도성, 평생학습 참여성과의 인과관계가 학습자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 평생교육기관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J. S. Kim,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college students, job search self-efficacy,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job preparation variables”, Andragogy Today, vol. 18, no. 2, pp. 43-67, 2015.

[2] S. N. Lee. J. A. Kim, “Concept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 Korean Acad Nurs, vol. 23, no. 2, pp. 181-190, 2017.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7.23.2.181

[3] B. N. L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earning Emotion' Scale for Self-Directed Learning”, Study method of education, vol. 23, no. 4, pp. 827-853, 2011.

[4] J. W. Yoo. B. K. Kim. M. H. Kang,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Capital on Self - 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Participation”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vol. 14, no. 3, pp. 45-70, 2014.

[5] S. M. Kwon, “Positive psychology: scientific inquiry of happiness”, Seoul: Hakjisa, 2008.

[6] K. H. Park,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dership performance”, A doctoral dissertation in Soongsil University, 2011.

[7] R. H. Park,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nd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enticity leadership, self - leading job performance attitude and organization identification”, Corpo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vol. 19, no. 1, pp. 95-123, 2017.

[8] Y. D. Choi. D. S. Lee,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erceived performance, turnover intention, happiness at work, subjective well ? being”, Korean Society of Personnel and Organization, 2vol. 011, no. 2, pp. 74-100, 2011.

[9] Y. M. Kim. S, H. Han, “Structural analysis of adult learners' self concept, participation motivation, learning participation and lifelong learning outcom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3, no. 2, pp. 123-143, 2012.

[10] S. H. Lee. J. H. Kim,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Learner Characteristics, Participation Motivation, Learning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in Middle-Aged Women”, Research on Lifelong Education vol. 22, no. 3, pp. 149-178, 2016.

[11] J. I. Byun, I. S. Kim,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Research on Lifelong Education, vol. 17, no. 4, pp. 29-53, 2011.

[12] W. S. Choi, “Analysis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for Adult Learners-Focusing on HRD Capital, Socio-Cultural Capital, and Personal Capital.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4, no. 3, pp. 381-419, 2005.

[13] H. Y. Jang, “Implic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for lifelong learning: Exploring happiness, authenticity, psychological capital”, Andragogy Today, vol. 15, no. 1, pp. 141-169, 2012.

[14] Fredrickson, B. L., Mancuso, R. A., Branigan, C., & Tugade, M, “The undoing effect of positive emotions”, Motivation and Emotion, 24, pp. 237-258, 2000.
DOI: https://doi.org/10.1023/A:1010796329158

[15] Luthans, 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Going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1). pp. 45-50, 2004.
DOI: https://doi.org/10.1016/j.bushor.2003.11.007

[16] Luthans, F., Avolio., B., Avey, J. B,. & Norman, 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vol. 60, no. 3, pp. 541-572, 2007.
DOI: https://doi.org/10.1111/j.1744-6570.2007.00083.x

[17] Y. I. kim, “The Effect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elf - directed Learning Ability on Job Satisfaction”, Lifelong Education · HRD Research, vol. 12, no. 1, pp. 117-142, 2016.

[18] J. C.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 Learning, Major Engagement, and Happiness of Adult Learners: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Andragogy Today, vol. 17, no. 4, pp. 85-113, 2014.

[19] K. Y. Lee. J. S. Son,.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apital on Empowerment and Learning Outcom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Management,* vol. 12, no. 4, pp. 289-300, 2010.

[20] J. S. Kim,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Employment Readiness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ndragogy Today, vol. 16, no. 4, pp. 31-59, 2013.

[21] Robinson, M. 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and resilience among 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2003.

[22] Meece, J. L., Blumenfeld, P. C., & Hoyle, R. H,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activit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0, no. 4, 514, 1998.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80.4.514

[23] Knowles, M. S,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to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IL: Follett Publishing Co, 1975.

[24] Gibbons, M, “The self-directed learning handbook: Challenging adolescent students to excel”, John Wiley & Sons, 2003.

[25] Tough, A. M. “The Adult’s Learning Projects(2nd)”, Toronto: The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1979.

[26] S. H. Han, “Verification of Moderating Effect of Lifelong Learning Performance Variables on Self-Directed Learning Level of Adult Learners”, Comprehensive study of education, vol. 8, no. 3, pp. 45-64, 2010.

[27] Y. S. Lee. K. W. Yoo, “Self-directed learning change of passive adult learners”, Andragogy Today, vol. 15, no. 3, pp. 173-207, 2012.

[28] K. A. Choi, “Differences in Learning Strategy Utilization According to Self-Directed Learning of Adults in e-Learning Environment”, Korean Education, vol. 36, no. 2, pp. 137-163, 2009.

[29] Y. W. Kim. J .S. Park. K. H. Jeon, “The mediating role of self-directed learn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learning outcomes of adult learners at cyber university. Education Media Information, vol. 19, no. 4, pp. 743-764, 2013.

[30] Boone, E. J., Safrit, R. D., & Jones, J, " Developing programs in adult education: A conceptual programming model", Waveland Press. Prentice Hall, 2002.

[31] Beder, H, "The Outcomes and Impacts of Adult Literac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MA: 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Adult earning and Literacy, 1991.

[32] A R. Kim, "A Study on the Learning Outcomes of Adult Learners in College Lifelong Learning",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2004.

[33] Schuller, T., Baron, S., & Field, J, "Social capital: a review and critique" Social capital: critical perspectives, 1-39, 2002.

[34] H. J. Lee, "The Effects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on Learning Outcomes of Adult Learners in College Lifelong Education Center", Education Research, vol. 19, no. 2, pp. 67-108, 2011.

[35] Putnam, R. D,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In Culture and politics", Palgrave Macmillan US, pp. 223-234, 2000.
DOI: https://doi.org/10.1145/358916.361990

[36] West, R. F., & Bentley, E. L, "Structural analysis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LISREL modeling.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in self-directed learning.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Oklahoma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and Higher Education, 1990.

[37] G. O. Yoo, "Self-directed Learning and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Adult Learners",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97.

[38] Seligman, M. E.,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vol. 60, no. 5, pp. 410-421, 2005.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60.5.410

[39] Cameron, K. S., Bright, D., & Caza, A, "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al virtuousness and performanc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7, no. 6, pp. 766-790, 2004.
DOI: https://doi.org/10.1177/0002764203260209

이 효 영(Hyo-Young Lee) **[정회원]**

- 2007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 정교사 2급
- 2015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수료
- 2015년 6월 ~ 현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관심분야>
평생교육, HRD, 성인학습